

발간관리번호

JB YWA-2025-004

2025 전북특별자치도 까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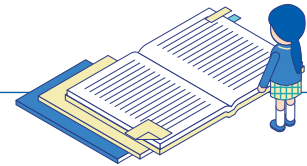
Contents

2025 전북특별자치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사례집

Part.1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개요

청소년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란?

6



Part.2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

남원시청소년수련관 | 가토
· 바른 먹거리 캠페인
· 베이킹 나눔 활동

10

남원시청소년수련관 | 동행
· 캠페인 활동, 놀이체험 활동

15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그린버스킹
·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 환경 인식 제고 활동

20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청청쉬어
· 상황별 수어 배우기
· 활용 영상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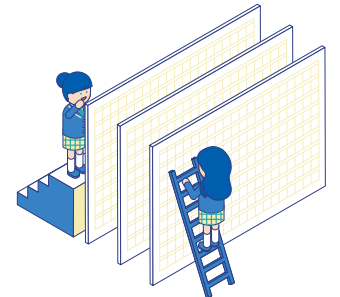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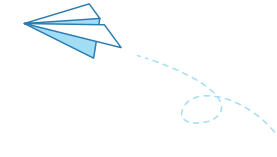
25

완주군청소년수련관 | 손끝으로보는동화
· 점자라벨 그림 동화책 제작

30

이서청소년문화의집 | 리본
· 뜨개 물품 제작 후, 기부활동

36



이서청소년문화의집 | 환경이갑이다
· 지역 환경 정화 활동

41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아롱별
· 인형극 기획 및 공연

46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청담누리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5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방송국 'YBS'
· 지역 이야기를 담은 방송국 운영

57

인후청소년센터 | 대나무행주
·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키트 만들기

63

청소년자치연구소 | 라온 자원봉사자치기구
· 어르신 손주 되기 프로젝트

68

청소년자치연구소 | 상상셀러 경제자치기구
· 경제활동 주체가 되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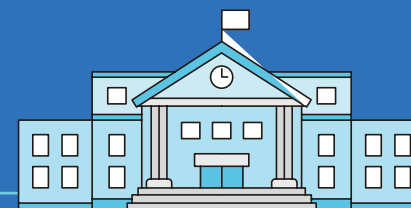
73

2025
전북특별자치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사례집

Part.1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개요

청소년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란?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스스로 조사·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준비, 활동, 평가합니다.

필수원칙



활동 3단계



전북특별자치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지원

1차 간담회

- 일시 : 2025. 3. 11.(화)
- 대상 : 동아리 담당지도자 15명
- 내용 : 동아리 운영계획 및 사업 안내



모니터링

- 일시 : 연중
- 대상 : 15개 동아리
- 내용 : 분기별 활동 보고서 취합



2차 간담회

- 일시 : 2025. 12. 2.(화)
- 대상 : 동아리 담당지도자 15명
- 내용 : 동아리 활동공유 및 소감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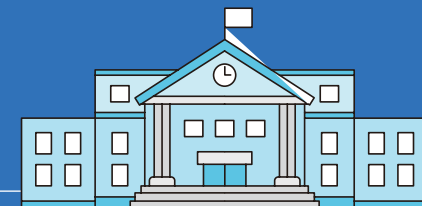
2025
전북특별자치도
파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사례집



Part.2

청소년 파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

- 10 남원시청소년수련관 | 가토
- 15 남원시청소년수련관 | 동행
- 20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그린버스킹
- 25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청청쉬어
- 30 완주군청소년수련관 | 손끝으로보는동화
- 36 이서청소년문화의집 | 리본
- 41 이서청소년문화의집 | 환경이갑이다
- 46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아롱별
- 51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청담누리
- 57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방송국 'YBS'
- 63 인후청소년센터 | 대나무행주
- 68 청소년자치연구소 | 라온 자원봉사자치기구
- 73 청소년자치연구소 | 상상셀러 경제자치기구



남원시청소년수련관

• 가토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11회	10명	바른 먹거리 캠페인, 베이킹 나눔 활동

동아리원

• 회장 강소희 • 부회장 오가연 • 서기 황인옥 • 지도자 박다은
• 부원 강민아, 윤다영, 박연희, 양은혜, 정민경, 장유빈, 오민주

66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제과·제빵 동아리 ‘가토’입니다.
가토 동아리는 베이킹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스스로 베이킹 메뉴를 선정하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베이킹을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토 동아리는 앞으로도 창의적인 활동과 나눔 문화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고자 합니다.

99



우리 동아리는 동아리의 특성과 재능을 살려 지역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자가 지역
사회와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점과 그 원인을 포스트
잇에 작성한 뒤,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바
른 먹거리 만들기’의 필요성, 그리고 청소년이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편의시설 부족 문제라는
두 가지 공통된 이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직접 베이킹을 통해 나눔 먹거리를 제
작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인 남원시청소년수련관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활동을 봉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른먹거리 캠페인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베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스승의 날 쿠키 나눔'을 실시하여 여러 종류의 쿠키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성껏 만든 쿠키를 학교 선생님들과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선생님들께 전달하며, 평소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베이킹 활동을 통해 쿠키, 타래과, 휘낭시에, 마들렌 등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희에게 '나눔 먹거리'를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눔용으로는 제작 과정이 간편하고 보관이 용이한 베이킹 품목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마들렌'을 나눔 먹거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먹거리 캠페인과 남원시청소년수련관 홍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어깨동무'와 연계하여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레몬과 초코 두 가지 맛의 마들렌을 약 180개 제작하였으며, 바른 먹거리 캠페인을 주제로 불량식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은 홍보 패널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다양한 종류의 베이킹 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베이킹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베이킹 강사님과 연계하여 '타래과만들기'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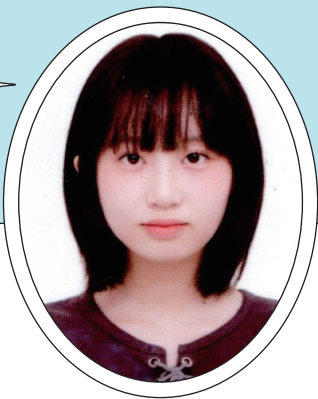
특강에서는 강사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타래과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제과·제빵 기술의 성장뿐만 아니라 베이킹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마들렌을 나누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바른 먹거리를 소개하는 캠페인 활동도 함께 펼치며 지역사회에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나눔 활동과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며, 참여한 청소년들은 "나눔의 의미와 영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66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동아리 99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제과·제빵 동아리 '가토' 회장 강소희입니다.

저는 평소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베이킹을 즐겨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원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과·제빵 동아리 모집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도구를 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토는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토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준비 과정부터 제작, 나눔까지 모든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베이킹 종류를 정하고, 레시피 구성·디자인·포장까지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미숙함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의견을 맞춰 가면 서 점점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큰 경험과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만든 제과·제빵을 수련관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선물할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계획 단계에서는 떠올리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제작 과정에서 번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까?' 하는 설렘으로 항상 수련관을 찾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부원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기에, 활동 시간 내내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베이킹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동아리 가토는 단순히 베이킹만 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부원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배우고 나의 마음이 담긴 베이킹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소중한 동아리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수련관 동아리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공간이 그리고 가토 동아리가 많은 친구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또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지금처럼 설렘 가득한 동아리 활동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원시청소년수련관

• 동행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11회	6명	캠페인 활동 및 놀이체험 활동

동아리원

- 회장 최예진
- 지도자 강나연
- 부원 장유빈, 강소희, 진성은, 최승인, 김민채, 소수경

66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을 행복하게” 동아리는 고등학생 멘토와
초등학생 멘티가 함께하는 특별한 친구 만들기 동아리입니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배우며 작은 일상 속 행복을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함께 놀이도 하고, 공부도 도우며 동생에게 웃음을,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활동하며
즐거움이 가득한 동아리입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동생들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위해
어떠한 활동으로 일년을 채울지, 또 동생들에게 필요
한 것은 무엇일지 함께 논의하며 일년의 시작을 알렸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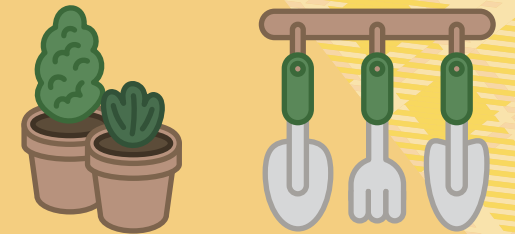


2단계, 사전 준비하기

기다렸던 동생들과의 첫만남!
역시 동생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는 것 같습니다.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감탄이 계속되던 날 이었습니다.
서로 이름과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 게임도 하고 유
행하는 캐릭터인 티니핑으로 나를 나타내보았습니다. 일명
“나는 무슨핑?”



식목일 맞이 공기정화 식물심기를 하였습니다.
나만의 개성 넘치는 화분도 만들어보고 공기정화
식물들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캠페인 동아리와 함께 연계하여 제로웨이스트샵에 방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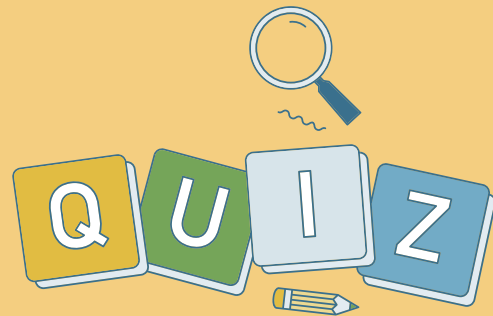
환경 교육과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
해 알아보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
니다. 또한 “용기내 챌린지”에 참여하여 일회용품 줄
이기를 실천하였고 작은 실천으로 변화할 앞으로가
기대되는 활동이었습니다 :)

친환경 비누 만들기로 동생들의 개성을
알아볼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모두 다른 우리의 수제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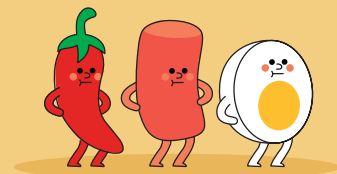


우리가 그동안 실천한 일들에 대해 공유하고 놀이 활동 및 퀴즈를 통해 더욱 재미있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게임 통하여 샌드위치 만들기, 궁중 떡볶이 만들기, 과일모찌 만들기 등 제일 흥미로움을 많이 느끼는 요리활동 !!

이 날은 궁중떡볶이를 만들었는데요. 맛있었지만 많이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흑백요리사처럼 직접 만든 요리로 선생님들에게 시식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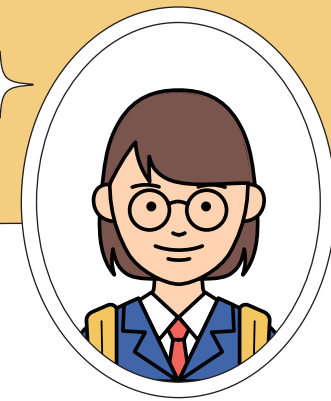


그동안 고생한 언니,
누나를 위해 동생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수험생 멘토를 위한 롤링페이퍼와 뽀빠로 만들기 활동입니다. 만드는 것과 먹는 것 그 어느것 하나도 놓칠 수 없었던 날. 멘티들의 진심이 담긴 쪽지는 모두를 울컥하게 하였습니다.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동행

최예진 회장



66 동생을 행복하게, 우리를 다채롭게 99

멘토링 동아리 “동행”의 멘토로서 활동하게 된지 3년째입니다. 첫 시작은 청소년 교육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어 시작하게 된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또래친구들과 초등 학생 동생들을 만나며 함께 활동하다보니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동아리 활동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자체 활동은 꾸준했지만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로 활동한건 작년부터였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논의하며 동생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나이라고만 생각했던 동생들에게서 나오는 의견들에서 성장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동생들이 주말 오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이 활동을 기다렸다는 동생들에 말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역사회의 동생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과 그 문화를 알리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그린버스킹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8회	20명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환경 인식 제고



동아리원

- 회장 김세아 • 부회장 송민서 • 봉사부장 이정운 • 지도자 김은화
- 부원 이하준, 김시은, 이의준, 서민율, 강라운, 김다솜, 서도영, 오하람, 김나린, 오선정, 김용호, 문은유, 김나은, 이영찬, 문정빈, 박해연, 최현빈

66

그린버스킹(G.B)은 완주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모여 만든 자기주도형 환경 봉사동아리입니다.

만경강 일대의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환경 캠페인, 버스킹 공연, 전시회, 환경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모든 회의와 활동 방향은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결정되며,

지도자는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협업 능력·문제해결력과 같은 실제적인 역량도 함께 성장시켰습니다. 그린버스킹(G.B)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예술과 실천으로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환경문화 활동을 통해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완주군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이지만, 최근 신도시 개발과 농·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해 쓰레기 증가와 생태 훼손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만경강 주변은 쓰레기 무단 투기, 하천 생태계 교란, 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예술과 캠페인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하기로 결정했다.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전시회, 환경 캠페인, 만경강 사진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알리고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그린버스킹(G.B) 동아리는 활동 시작 전, 만경강 일대의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활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환경 캠페인, 버스킹 공연, 전시회 등 필요한 활동을 정한 뒤, 준비물과 예산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전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주민 및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미리 조율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1회기 - 활동 계획 세우기 “우리의 첫 번째 결정”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모둠별로 둘러앉아 활동명을 정하는 것부터 환경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까지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며 기록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주어진 활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직접 결정한다”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의 핵심을 몸소 경험하였다. 누구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누구는 내용을 정리하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날 작성한 활동계획서는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질 그린버스킹(G.B)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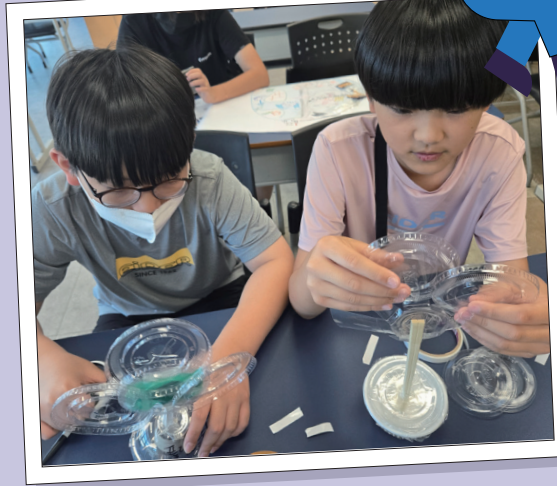
2회기 - 환경보호 캠페인 포스터 제작 “문제를 알리고 싶은 우리의 목소리”

청소년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청소년은 플라스틱 오염 사례를 떠올리며 “오늘 버린 쓰레기가 내일의 자연을 아프게 한다”는 메시지를 넣자고 했다. 완성된 포스터들은 회의실 곳곳에 펼쳐져 전시되었고,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환경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이야기 나누었다. 환경 문제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3회기 - 플라스틱 나무 만들기 “쓰레기가 예술이 되는 순간”

플라스틱이 자연에 얼마나 오래 남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이게 얼마나 오래 썩지 않는지 아세요?”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기 시작했다. 완성된 플라스틱 나무는 청소년 각자의 색감과 개성이 담겨 있었으며, 쓰레기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었다. 학생들은 환경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업사이클링 활동에 대한 관심도 더 갖게 되었다.



4회기 - 헌 청바지를 활용한 킬링 제작 “버려지는 물건의 새로운 시작”

청소년들은 청바지의 색감과 질감을 살펴보고 각자 원하는 모양과 디자인을 스케치한 후, 손바느질과 접착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처음 바느질이 서툰 친구들은 옆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 나갔고,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 점차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버려질 청바지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구나!”라는 아이들의 감탄이 이어졌으며, 평소 당연하게 버리던 물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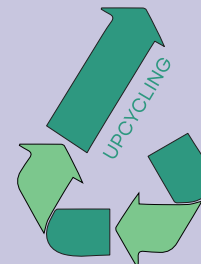


6회기 - 폐우산으로 만드는 방수커버 “업사이클링을 몸으로 경험하다”

우산 천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얇지만 튼튼한 우산 원단의 특성을 직접 확인했고, 방수커버 제작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지만, 청소년들은 서로 원단을 잡아주고, 재단을 도와주며 협력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평소 무심코 버리던 물건도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업사이클링의 참된 의미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완성된 방수커버는 전시회에도 활용되며 청소년들의 성취감을 더욱 높여주었다.

8회기 - 작품 감상 및 피드백 “환경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지금까지 제작했던 업사이클링 작품을 돌아보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을 공유하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은 전시된 작품 앞에 서서 자신이 만든 작품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색다른 표현 방식도 발견하며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감상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송민서 부회장



66 작은 손이 만든 큰 변화 99

저는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한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그린버스킹(G.B)' 활동에 6개월 동안 참여했습니다. 처음 이 활동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환경을 주제로 한 봉사활동이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참여해 보니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진짜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어려움

첫 모임에서 우리는 팀 이름을 '그린버스킹(G.B)'으로 정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지만, 지도자 선생님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자기주도 활동의 핵심"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끼리 회의를 통해 만경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주제로 정하고,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버스킹 공연,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려니 막막했지만, 회의가 거듭될수록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활동을 통해 느낀 성취감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물과 재활용품을 활용해 예술작품을 만들면서 쓰레기 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지막 9월의 만경강 사진전입니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만경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오염된 모습을 나란히 전시하자, 많은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어른신께서는 "이런 활동 덕분에 우리 마을의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느낀 보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성장 이야기

이 활동을 통해 저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크게 키웠습니다. 활동 초반에는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팀의 발표를 맡으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전에는 쓰레기를 아무 생각 없이 버리거나, 환경문제를 남의 일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자연과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

'그린버스킹' 활동은 끝났지만, 저의 환경보호 실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경강 정화활동을 이어가고, 학교에서도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작은 실천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 변화를 만드는 청소년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신 지도자 선생님들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에 감사드립니다. 그린버스킹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청청쉬어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8회	20명	상황별 수어 배우기, 활용 영상 촬영

동아리원

- 회장 김혜근 • 부회장 이성찬 • 봉사부장 강혜린 • 지도자 최나영
- 부원 노정빈, 박시연, 서은지, 양미소, 오하람, 유한준, 이지음, 정수미, 채지은, 한서연, 이슬, 이영찬, 김태홍, 박지호, 서영현, 장준혁

66

‘청청쉬어’는 청소년이 수어를 배워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동아리로,
단순한 봉사 참여를 넘어 서로 배우고 나누는 성장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직관적이고 친근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어의 의미와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기획부터 촬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99



1회기 : 함께 시작하는 첫걸음 - 전체 일정 안내 & 안전교육 -

처음 동아리를 시작하는 날이라 조금 떨렸어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전체 일정을 함께 살펴보고,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동아리 운영 규칙 등을 간단하게 정해보았습니다. 특히, 촬영 시 안전수칙과 활동 공간 이동 시 지켜야 할 점 등 안전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를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걱정되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이름을 읽어보며 “올해는 우리 손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자!”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회기 :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수어 배우기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자주 쓰는 생활 수어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보니 다들 집중해서 수어 표현을 따라했습니다. 배운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손 모양이 헛갈려서 서로 보면서 웃었지만, 몇 번 반복해서 하다보니 “아! 이제 알겠다!”하며 금세 익숙해졌고 마지막에는 서로 짝을 지어 표현 맞춰보기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3회기 : 촬영 준비!

표정·손모양·타이밍 연습

드디어 촬영하는 날! 첫 날 정했던 팀별 역할을 바탕으로 촬영 순서를 정하고 각자 맡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찍기 위해 여러 번 다시 찍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표현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서로 웃음도 터졌지만, 수어는 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거울 보며 서로 “이 표정 좀 살려봐 ~!” 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영상 콘티(촬영 순서)도 직접 짜봤어요.



4회기 : 대중교통에서 쓰는 수어 표현 배우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수어 표현을 배웠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연습하며 다들 실제 상황을 연기하는 등 재미있게 참여했다.

“택시비는 카드로도 됩니다.”, “버스는 여기에서 탑니다.”라는 두 가지의 수어 표현을 배우며 우리는 “이거 진짜 유용한 표현이다!”하며 집중해서 따라하고, 특히 ‘카드’ 표현과 ‘버스 타는 곳’ 표현은 손동작이 헛갈려서 서로 손을 잡고 모양을 비교하며 연습하느라 분위기가 북적북적 했습니다.

5회기 : 영상 편집 도전하기

오늘은 영상 편집에 도전! 아직은 서툴러서 자막 넣는 데만 한참 걸렸지만, 직접 만든 자막이 화면에 뜨니까 다들 박수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돼?”, “배경음악은 뭐가 좋지?”하며 서로 알려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첫 편집본을 보며 박수칠 만큼 서로 뿌듯해했습니다. 편집을 마친 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중교통에서 쓰는 수어 표현 활용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수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표현 → 역할구성 → 촬영 → 피드백까지 하나의 과정을 팀워크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6회기 :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어 표현 배우기

이번 회기는 조금 더 중요한 주제인 응급상황 수어 표현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우리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집중하기 시작했다.

“기다리시면 경찰이 올거예요.”, “도와드릴까요?” 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을 배우며, 표정이 특히 중요한 표현이다 보니 “진짜 다급하게 표현해봐!”라고 하며 서로 진지하게 연습했다. 수어 표현을 배운 후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상황별 역할극을 하기도 했다. 특히, 손동작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여러 번 반복하며 속도 조절 연습을 했다.

7회기 : 응급상황 수어 영상 촬영 & 편집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응급상황 표현을 사용해 실제로 완주군 내 친구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팀별로 카메라, 배우, 촬영 보조까지 역할을 스스로 나누며 자기주도적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 중간중간 손 모양이 잘 보이지 않으면 “각도 조금만 더!”, “손 높이 맞춰보자.”라고 하며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은 응급상황 주제에 맞게 중요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선택하여 안정감을 주는 구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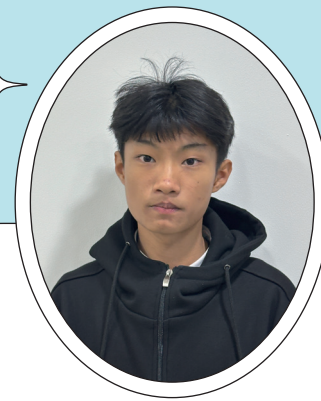


8회기 : 동아리 활동 평가회의 및 마무리

마지막 회기인 오늘은 8주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회기를 포스트잇에 적어 공유하며 “처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수어의 매력도 알게 되었고, 촬영 기법도 잘 배워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와 같은 진솔한 말들을 주고 받았다. 또한, 활동 중 좋았던 점, 조금 어려웠던 점, 우리가 만든 영상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청청쉬어’ 활동에 대해 서로에게 건네며 함께 고생한 시간을 축하했고, “다음 학기에도 하고싶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청쉬어

이성찬 부회장



66 손으로 전한 마음, 나를 바꾼 8주 99

안녕하세요,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청청쉬어’ 부회장 이성찬입니다.

처음 ‘청청쉬어’ 동아리를 한다고 지원했을 때, “수어가 어렵지는 않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첫날 안전교육을 받으며 전체 일정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우리가 직접 콘텐츠까지 만들어보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설렘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회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공공장소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배워 ‘내가 모르는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손 모양을 맞춰보면서 수업 분위기도 금방 편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4~5회기로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어 표현을 연습하고 촬영했을 때입니다. “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 “택시비는 카드로도 됩니다.”와 같은 말들이 제 손 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을 때 너무 신기했고, 촬영할 때에는 웃음이 터져 여러 번 다시 찍었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팀워크도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6~7회기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쓰는 표현을 배우고 직접 영상을 촬영·편집하며 수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닌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새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8회기 활동 평가회의에서는 처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어 표현을 익힌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 경험이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만 움직이던 친구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문장을 표현하고,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던 친구가 자신 있게 촬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청청쉬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는 수어가 단순히 봉사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언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소통에는 말만 필요한 게 아닌 손끝 하나, 표정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청쉬어’는 저에게 단순한 수어 동아리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배운 수어를 잊지 않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완주군청소년수련관

• 손끝으로 보는 동화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혼합	28회	18명	점자라벨 그림동화책 제작 완주군립 도서관 13곳, 전북맹아학교 전달 및 기부

동아리원

- 회장 박정환
- 부회장 라성진
- 지도자 김숙희
- 부원 감승준, 권준하, 김다미, 김성민, 김성진, 김소원, 김운서, 김은율, 박도현, 박진영, 박진우, 송민준, 오석주, 유수정, 이가은, 정 찬

66

‘손끝으로 보는 동화(aka.손끝동)’는 시각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장애 및 점자에 대한 이해 증진(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입니다.

휴대용 점자제작키트(볼로지)를 활용해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완성된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은 완주군립 공공도서관 5곳, 작은도서관 8곳, 전북맹아학교에 전달·기부하여 더 많은 시각장애인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동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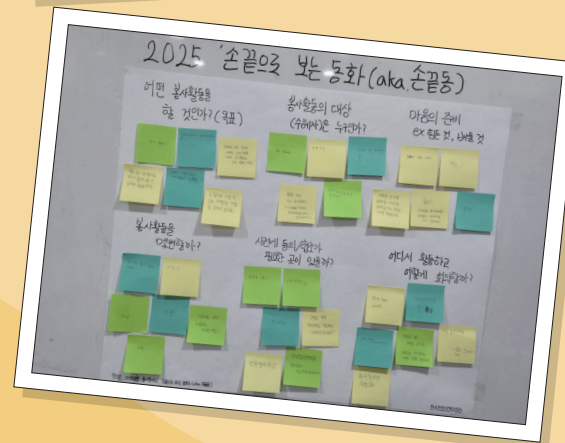
‘손끝으로 보는 동화(이하 ‘손끝동)’은 3년 전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의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판물 중 점자 도서 비율이 0.2%에 불과하고 가격은 일반 도서의 5배 이상이며, 점자 학습 교구 보급률도 1% 미만인 심각한 현실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86%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운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기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했으며, 그 과정 중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대학생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휴대용 점자 제작 키트(볼로지)를 활용한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시각장애 아동·청소년과 비장애 아동·청소년이 함께 볼 수 있는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을 제작해 완주군립도서관 13곳과 전북맹아학교에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완주군청소년수련관에서 제작 활동을 진행하고 완성된 책은 공공도서관 5곳, 작은도서관 8곳, 전북맹아학교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에 앞서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대학생에게 점자의 기본 원리와 필요한 책 형태를 배우고, 점자 이해와 번역, 휴대용 점자 제작 키트(볼로지) 사용법을 학습 및 연습하며, 정확한 라벨 제작을 위해 준비 과정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그림동화책 점자 번역과 스티커 제작 및 부착」 2025년 3월 3주~8월 4주 (총 22회)

- 동화책 내용 타이핑 → 점자 번역 → 점역 확인 → 점자라벨 스티커 제작 → 부착
- 매주 1회, 1회당 3시간 동안 활동 진행
- 총 22권의 점자라벨 그림동화책 완성



점자라벨 그림동화책 기부 ①

- 고산도서관 : 오싹오싹 크레용!
- 둔산영어도서관 : 무례한 친구가 생겼어요
- 중앙도서관 :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 경천애인작은도서관 : 오싹오싹 당근!
- 용꿈작은도서관 : 천둥꼬마선녀 번개꼬마선녀
- 철쭉작은도서관 : 오싹오싹 팬티!
- 화산골작은도서관 : 감정서커스



점자라벨 그림동화책 기부 ②

- 삼례도서관 : 어느 멋진 여행
- 콩쥐팥쥐도서관 : 생각
- 구름골작은도서관 : 오싹오싹 크레용!
- 기차길작은도서관 : 엄마가 만들었어요
- 모악작은도서관 : 친구의 전설
- 배꽃들작은도서관 : 겨울을 만났어요



「2025 완주아동권리영화제 출품작 제작」

- '손끝동'의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기부 후 기대와 보람까지 모든 활동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의 활동을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유함.
- 시나리오 작성 및 피드백 수렴
- 주인공 및 배역 오디션 진행
- 휴대폰 촬영 및 편집



점자라벨 그림동화책 기부 ③

- 전북맹아학교
 - 겨울을 만났어요
 - 린 할머니의 복숭아 나무
 - 어느 멋진 여행
 - 오싹오싹 당근!
 - 오싹오싹 팬티!
 - 천둥꼬마선녀 번개꼬마선녀
 - 친구의 전설 *2
 -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66 함께였기에 빛난 3년의 우리들의 기록 99

저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경험하며 '청소년 지도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스럽게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실천자로서 활동에 임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2년간 참여했던 '손끝으로 보는 동화' 활동은 제게 깊은 동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기증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활동을 이어갈까?'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동아리 등록부터 모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었으며, 길잡이 선생님께서는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계획·실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기에, 덕분에 진정한 자기주도 봉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점자 제작은 특수성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라벨 위치 오류와 더딘 작업 속도 속에서도 팀원들과 협력하고 실패를 공유하며, 리더십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을 통해 비장애 아동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눈빛은 제게 큰 감동과 보람을 주었으며,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함께 읽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활동 중 동아리원들의 참여율이나 작업 속도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시행착오 자체가 큰 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장으로서의 경험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청소년 지도사'라는 꿈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봉사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나아가 '손끝동' 활동이 널리 확산되어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이 모두에게 당연한 배려가 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6 청소년과 함께 이룬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 99

2023년, 시각장애 아동들의 책 접근성 제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함께 '손끝으로 보는 동화'를 기획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을 만들며 장애 인식을 함양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해 교육부터 제작 전 과정에 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제게 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만든 총 75권의 동화책이 14개 기관에 전달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 한 권 한 권이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선사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세상에 '빛'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3년간의 여정을 담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2025년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에 출품한 것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청소년의 힘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모든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용기와 주체적인 의지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보는 동화'는 나눔을 넘어 참여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큰 보람도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책이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그들의 자부심에서, 장애 편견이 허물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씨앗이 움트는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손끝으로 보는 동화'가 지속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동화책 내용과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소통과 배움의 장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따뜻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진심 어린 안내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서청소년문화의집

• 리본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6회	10명	뜨개 물품 제작 후, 기부활동



동아리원

- 회장 서연우
- 부회장 강현아
- 지도자 김호린
- 부원 김성재, 김윤아, 문지호, 박도현, 박서현, 박진수, 신수빈, 이영재

66

우리 동아리는 손으로 따뜻함을 짓고,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가는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입니다.
뜨개질 도안을 읽고 기초를 익히고 작은 과정부터, 한 코 한 코 정성을 담아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단계는 동아리원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장했다는 성취감과 따스한 보람을 함께 느끼며, 앞으로도 손끝의
온기를 모아, 세상에 조금 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생활용품 부족 속에서 정서적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고, 책임감 없는 반려동물 양육으로 늘어난 유기 동물로 인해 보호소의 과밀화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특별한 일로만 여기며 일상 속 작은 나눔 문화가 부족한 현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뜨개 활동을 통해 만든 따뜻한 작품으로 하지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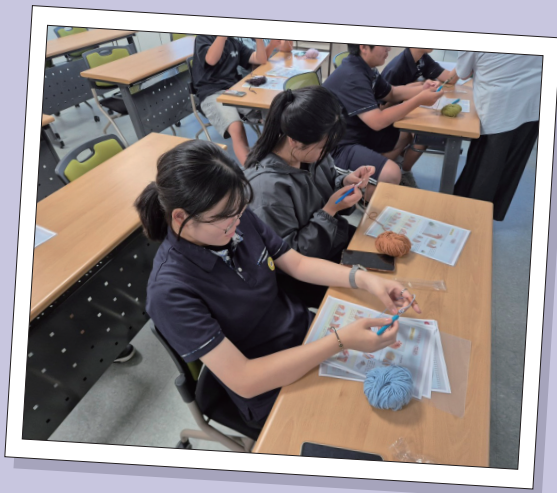


2단계, 사전 준비하기

기부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하고 구비했습니다.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체일정,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동아리원들이 활동 목적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대바늘, 코바늘 기초기술을 사전에 익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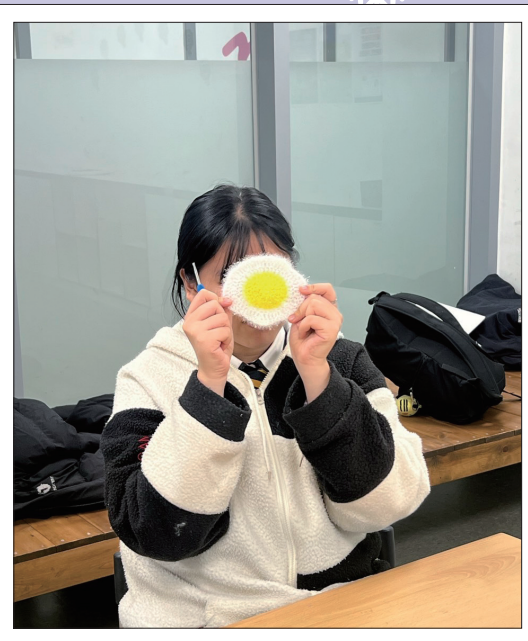
우리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간 일정과 활동 방향을 안내받고, 이를 토대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아리명은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의 '리본(Re:Born)'으로 정해 활동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기부할 수세미 제작을 위해 코바늘 기초를 배우며 기본 뜨개 기술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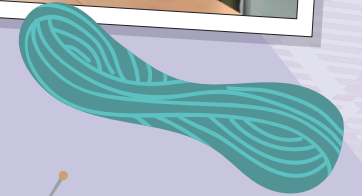
활동의 시작으로 복지관에 기부할 계란 모양 수세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코바늘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배운 기초를 떠올리며 차근차근 원형 뜨기부터 진행했습니다. 기본 형태를 완성한 뒤 계란 노른자 부분과 흰자 모양을 더해 계란 수세미 형태를 완성해 갔습니다. 구성원들은 서로의 작업을 살펴보며 도움을 주고받았고, 첫 작품을 완성하면서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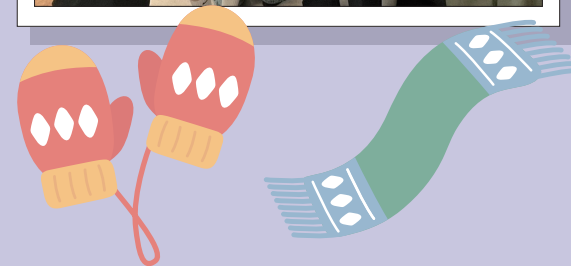


복지관에 기부할 식빵 모양 수세미 제작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식빵 형태는 주로 한길긴뜨기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전에 익힌 기본기를 떠올리며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탕을 네모 형태로 뜨고 가장자리 부분에 식빵 테두리를 표현해 자연스러운 식빵 모양을 완성해 갔습니다. 반복적인 뜨기 작업이었지만, 구성원들은 차분히 집중하며 각자만의 속도로 완성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에 기부할 목도리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바늘의 기본 기술인 안뜨기와 겹뜨기를 집중해서 연습한 뒤, 배운 기초를 활용해 작은 크기의 미니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 잡는 법과 코 유지가 어려웠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 점차 익숙해졌고, 완성된 목도리를 보며 활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수세미는 깨끗하게 날개 포장하여 전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기부처인 경로당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음료수와 직접 만든 수세미를 어르신들께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나누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는 기부증서를 전달받으며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 한 곡을 불러드렸고, 어르신들의 박수 속에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완성한 미니 목도리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상자에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후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 택배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물품 전달 절차를 마친 뒤에는 다시 이서청소년문화의집에 모여 마지막 평가 회의와 활동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며 이번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66 나눔을 배운 시간, 마음이 자란 봉사 99

처음에 자기주도 봉사활동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봉사시간을 채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뜨개질도 배우고, 만든 물건을 기부한다고 해서 가볍게 시작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어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체가 돼서 기획하고, 배우고, 실천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바늘 잡는 법도 제대로 몰랐고, 실도 자주 꼬이고,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주고, 선생님께서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계란 수세미랑 식빵 수세미는 처음엔 재미있어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점점 손이 익고, 나중에는 내가 만든 걸 보면서 '이걸 누군가가 실제로 쓴다고 생각하면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만드는 걸 넘어서,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뜨개질을 하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대바늘로 목도리를 만들었던 활동이에요. 대바늘은 코바늘보다 쉬웠지만, 처음엔 한 줄도 제대로 못 짰어요. 근데 내가 만든 목도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기견들에게 쓰인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강아지들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완성된 목도리를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내가 손으로 만든 게 누군가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기부하러 갈 때는 조금 긴장도 됐는데, 우리가 만든 수세미와 목도리를 반갑게 받아주시고, 예쁘다고 해주셔서 정말 기뻐했어요. 뭔가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히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봉사는 꼭 큰돈을 들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조금 배우고 노력해서 만든 걸로도 충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평가 회의에서는 우리 동아리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 과정 소개에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뜨개질 실력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이라는 게 거창한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손으로 직접 나누고 도울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처음엔 그냥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시작했던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이 경험이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서청소년문화의집

• 환경이 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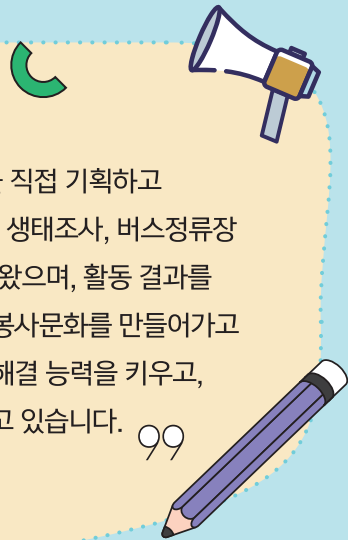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10회	10명	이서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동아리원

- 회장 박관용
- 부회장 강현아
- 지도자 김효린
- 부원 윤수정, 박나령, 김하경, 최현준, 최서아, 박진수, 박서현, 서연우

66 우리 동아리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환경 봉사 동아리입니다. 그동안 수질정화, 생태조사, 버스정류장 화단 꾸미기, 환경 벽화 그리기 등 지역 환경 개선에 참여해 왔으며, 활동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봉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환경 문제도 직접 발굴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지역 환경을 직접 살피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빙등재와 버스정류장,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주변에는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지역 미관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는 일회용품 과다 사용, 분리수거 미흡, 전기·물 자원의 낭비 등 지속적으로 환경을 해치는 습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단과 벽면엔 방치된 낙서 등 건물 및 공간의 미관 문제도 드러나 지역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당일의 기후 변화와 날씨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활동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집게, 붓, 청소도구 등 사용하게 될 각종 도구들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활동했던 지역을 직접 다시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줍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활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존에 해결된 문제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새롭게 해결해야 할 환경 이슈와 보완해야 할 점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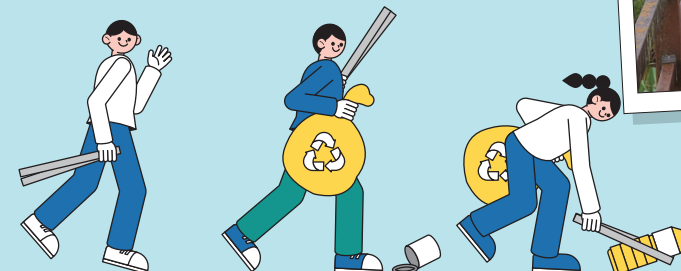


미생물의 기초지식과 환경에 유익한 유용미생물(EM)의 역할을 배우고, 점오염원·비점오염원 등 환경오염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이후 공원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M 흙공을 만들어 빙등제 수질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황폐화된 지역의 생태 회복을 돕기 위해 씨드밤을 제작해 뿌리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미생물 기초지식을 떠올리며 유용미생물이 무엇이며 환경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생태 도감에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빙등제 수질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비 온 뒤 변화한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비점오염원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수직 약화가 관찰되었던 지점을 찾아 상황을 점검한 뒤, EM 미생물 흙공을 던져 수질 개선을 돕는 실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빙등제에서 연꽃이 빠르게 번식하는 이유를 조사하며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EM 흙공을 투척해온 활동이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연꽃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질 변화는 빙등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여 연꽃 번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활동을 떠올리며 우리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던 장소를 함께 기억해 보고, 각자가 작성한 생태도감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퀴즈를 내며 관찰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황폐화된 화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꽃인 일일초와 펜타스의 특징을 알아본 뒤 가드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단에 꽃을 직접 심고 배치 상태를 확인한 후 물주기까지 마무리하며 공원 환경을 가꾸는 실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빙등제 수질정화를 위해 EM 흙공 던지기 활동을 실시하고, 활동 전후의 수질 변화를 관찰·기록하여 정화 효과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빙등제 주변 산책로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여 수질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재형소년문화의집 환경이 같이다

강현아 부회장



66 작은 손, 큰 지구를 움직이다 99

처음에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거나 식물을 관찰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활동에 참여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을 돌아보며 줍기 활동을 했어요. 그냥 평소 지나던 길이었는데, 막상 쓰레기를 주우려고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쓰레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길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쓰레기를 하나씩 주우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행동하면 분명 환경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EM 흙공 만들기였어요. 흙이랑 미생물, 물을 섞어서 공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단순한 만들기 활동이 아니라 이 흙공이 실제로 더러운 물을 정화해준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빙등제에 우리가 만든 흙공을 던졌을 때, '내가 만든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또, 씨드밤을 만들어 꽃씨를 심는 활동도 재미있었어요.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서 예쁜 꽃이 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동생, 언니, 오빠들과 환경 오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뜻깊었어요. 단순히 환경이 오염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더 고민해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환경문제를 그냥 뉴스에서만 보던 주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활동을 하면서 식물 조사도 했는데, 평소에는 그냥 '풀'이나 '꽃'으로만 보이던 것들도 이름과 특징을 알게 되니까 더 특별하게 보였어요. 계절에 따라 식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처음 알데 됐어요. 강릉 꽃을 조사할 때는 예쁜 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앞으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어요. 친구들에게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함께 활동하고 싶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내가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제 삶을 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아롱별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33회	20명	인형극 기획, 공연 진행, 아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동아리원

- 회장 김정훈
- 부회장 김도은
- 지도자 임소현
- 부원 배지완, 김민선, 김유정, 김하늘, 이유경, 이현경, 장현지, 김나영, 박 솔, 이은경, 오지혜, 김수영, 임혜빈, 김혜원, 양원민

66 우리 '아롱별' 동아리는

'아롱다롱 빛나는 별처럼'이라는 순우리말로

'반짝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과 익산시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인형극을 직접 기획·제작하여

공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 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스마트폰은 놀이와 영상 시청 등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중독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며, 더불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춰 양치의 중요성과 기초 성교육 내용을 담은 인형극도 추가로 기획·제작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형극 기획팀과 공연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기존의 방문하던 어린이집뿐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집과 유관 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새로운 인형극을 준비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아 모형 등을 제작하며 다가올 인형극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인형극 활동에 필요한 동선을 논의하고 무대를 준비한 뒤, 음원을 맞춘 연습을 진행하였다.
움직임 연습이 처음인 인원이 많아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어 진행이 다소 더뎠으나,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합이 맞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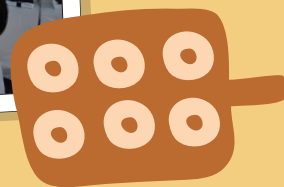
원대병원부설원심어린이집, 함열원광어린이집, 황등원광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스마트폰 영웅 토토', '빨간모자와 숲 속 친구들', '백설공주와 춤치마녀 이야기' 인형극을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인형극을 재미있어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교육적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5회기 동안 운영하였다.

게임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 뒤, 동아리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쿠키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량기 사용법과 각종 도구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양한 체험 요소를 포함해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아롱별

김정훈 회장



66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다 99

안녕하십니까. 아롱별 동아리 회장 김정훈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회장의 권유로 인형극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제 인생의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활동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동아리에 바로 부회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저의 인형극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가 가장 처음 배운 것은 부원들을 이끄는 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사를 연습하고 작은 인형극을 만들어 보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졌고, 활동 그 자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집과 유관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형극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인형극을 선보이는 경험은 제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주며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자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또 와주세요!"라고 말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인형극 속 캐릭터들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직접 극본을 만들고, 소품을 제작해 어린이집에 맞는 맞춤형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 표창(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장)과 동아리원들의 개인 표창(여성가족부장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도 받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상'도 기뻐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공연 후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오는 순간이 제겐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인형극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자신감도 성장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역할을 조율하고, 어린이들에게 체험 인형극을 직접 지도하면서 남들 앞에 서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형극 동아리 활동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방문 공연뿐 아니라, 지역 아동복지기관 연계 공연 등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는 인형극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6 청소년과 함께한 인형극 활동 이야기 99

‘아롱별’ 동아리 지도자로서 한 해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인형극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많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형극 활동은 단순한 공연 준비를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대본을 쓰고, 인형과 소품을 제작하며, 기관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기 주도형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올해 아롱별은 ‘백설공주와 춤추는 마녀 이야기(양치의 중요성)’, ‘스마트폰 영웅 토토(스마트폰 중독 예방)’, ‘빨간 모자와 숲 속 친구들(성교육)’ 등 세 가지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인형극을 기획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대상 기관 선정, 공연 흐름 구성 등 전반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대본 수정과 소품 제작, 연습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며 책임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원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짧은 시간이라도 모여 리허설을 반복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특히 공연 후 아이들이 직접 인형을 만져보고, 주인공과 대화하는 참여형 요소를 더해 아동의 몰입과 교육 효과를 자연스럽게 높인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집 및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다”,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되었다”, “다음에도 꼭 방문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피드백을 전해주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협동심, 책임감,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만든 공연이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활동을 함께하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청담누리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22회	35명	지역사회 청소년 행사 운영 지원, 재능기부 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동아리원

- 회장 이은경 • 부회장 오지훈 • 프로그램 개발팀 김민정 • 프로그램 개발팀 김민정 • 지도자 임소현
- 부원 강어진, 고가영, 고지후, 김도은, 김민선, 김민지, 김수영, 김수진, 김시훈, 김신영, 김예진, 김정훈, 김종화, 김창현, 김하늘, 김화연, 나현성, 문주화, 문혜림, 박소은, 박우빈, 박진경, 박환희, 배지완, 서지영, 송가현, 양원민, 오지혜, 유우진, 이가은, 이수빈, 이유경, 이윤정, 이채은, 이현경, 임혜빈, 장원중, 장현지, 정선아, 정우성, 조민성, 천성관, 최다해, 한상인

66

우리 동아리는 청소년지도사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모여

실제 현장에서의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의 여러 청소년 기관과 협력해 매달 정기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행사에 참여해 부스 운영 지원이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며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 역량을 차근차근 익히며 예비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익산시 내 청소년 기관에서는 주말이나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문화·놀이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담누리 동아리는 청소년지도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와 체험 활동을 선정하고,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익산유스호텔, 삼동청소년회, 원광대학교 등 지역 청소년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과 행사 일정을 조율하여 사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회장, 부회장, 프로그램 개발팀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사전 회의를 통해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과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활동에 앞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시간에는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 및 문화생활 부족한 이유를 논의하였고, 문화시설의 한계, 보호자 관심 부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고민하며 지역 공원이나 청소년 시설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찾아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청소년들이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체활동 기반 놀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함께 활동한 것은 큰 보람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 아쉬움이 있었고, 회의를 통해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을 확인했다. 이에 다음 활동부터는 홍보 과정에도 더 신경 쓰기로 하였다.



삼동청소년회 주관 청소년 가요댄스경연대회를 진행하였다. 경연대회 본선 운영 지원 인력으로 참여하여 무대 진행 보조, 관객 안내, 참가팀 응원 등을 도왔다. 본선 무대에 진지하게 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행사 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진행에 기여했다는 보람을 느꼈으며, 모든 동아리원이 협력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참가팀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ESG 환경을 주제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에 앞서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ESG의 의미와 환경오염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활동에서는 버려지는 청바지를 활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업사이클의 개념을 직접 경험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 되었다.



8월 여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며 즐겁고,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재밌는 활동을 통해 여름철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깨달으며 보다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다. 여름 분위기를 살린 활동들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안전과 놀이가 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익산시 청소년문화의거리” 부스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통놀이, 캐리커처, 팝콘 부스 등 다양한 부스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만큼 사전에 참여 인원별 역할을 나누고 준비한 덕분에 행사 당일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 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고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형담누리

이은경 회장



66 봉사 속에서 찾은 나의 장래희망 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누리”에서 활동 중인 이은경 청소년입니다.

저는 대학교 새내기 시절 동아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까 친구들과 고민하던 중 봉사 동아리라면 큰 부담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가입만 해놓고 실제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추천으로 동아리 임원을 맡게 되었고, 조금씩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운영지원, 체험 부스 기획, 청소년들과의 활동 등 현장에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 봉사가 단순히 돕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배우는 과정이며 보람된 일이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아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준비해야 좋아할까”,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주고 싶다” 와 같은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청소년지도사” 라는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동아리 안에서도 제가 맡는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임원에서 부회장을 거쳐 지금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하며 힘든적도 많았지만 서로 돕고 함께 움직이며 각자의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서로 챙겨주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동아리원들 덕분에 항상 든든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활동들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66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다. 99

올해 저는 '청담누리' 동아리와 함께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도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담누리는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로, 참여 청소년들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활동의 목표는 동아리원들이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활동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면서 협력과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 초기에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주제 선정, 역할 분담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청담누리'의 활동은 다양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지역 청소년 행사에서 재능기부 부스 운영과 행사 진행 및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았고, 여름방학에는 환경 보호, 업사이클링, 테라 리움 만들기, 바다유리 공예 등 총 5회기 실천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청소년들에게 직접 체험을 통한 학습과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활동 중에는 홍보 부족, 자료 준비 미비, 역할 분담 미흡 등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지만, 동아리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며 지도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획력, 실행력, 협력,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동아리원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가 지도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의미와 보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청담누리 동아리원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방송국 YBS ·



활동

방식	회수	인원	내용
대면	8회	20명	방송국 운영

동아리원

- 회장 한준수 • 부회장 허승빈 • 총무 박종호 • 지도자 김승진
- 부원 전예담, 김록연, 이채원, 박강민, 정수오, 한윤정, 서윤국, 서윤복, 박지현, 유지은, 장천광, 김민준, 송민제, 박민준, 박서진, 정겨울, 박소민

66 우리 방송국 동아리는 “청소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년이 직접 이끄는 미디어 문화를 넓혀가는 동아리입니다.

우리는 기획·촬영·편집·보도 등 방송 제작의 전 과정을 청소년 스스로 경험하며, 전문가와 협력해 기초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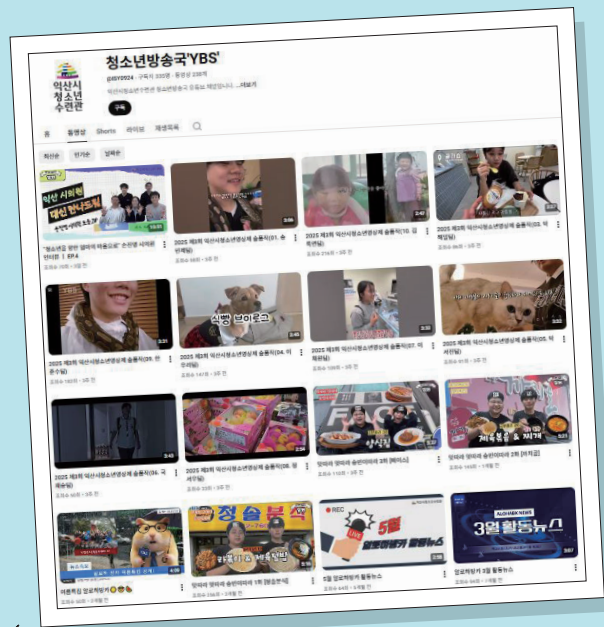
주말과 휴일을 활용한 촬영 활동, 학교 행사·지역 축제 참여, SNS 콘텐츠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체험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미디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활동 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익산 청소년 미디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방송국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익산시는 미디어 전문 인력과 협력 자원이 부족해 청소년 영상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제한이 있었고, 일정·운영 방식의 조정 과정에서 안정적 운영 기반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 주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가 피드백 보완, 연초 일정 확정 및 매뉴얼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익산시 내 미디어 인력·촬영 협조처를 미리 확보하고, 연초에 교육·운영 일정을 확정한다. 청소년 주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편집까지의 간단한 운영 매뉴얼을 준비하고,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피드백 체계를 사전 구성한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모여 오리엔테이션과 기획회의를 진행하였다. 활동 소개와 안내를 통해 올해 연간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촬영 지원 일자와 기획회의, 교육 일정 등을 함께 조율하였다. 처음 모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친구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연간 활동이 많아 향후 동아리 내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익산시청소년의날 행사와 익청수 부스 체험활동 촬영을 위해 모여 부스 운영과 촬영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첫 활동임에도 스스로 촬영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장비가 미비해 핸드폰으로 촬영을 진행해야 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반기 활동을 앞두고 카페에 모여 5월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난 활동의 장단점을 공유하며 운영 방안을 정리했고, 여름방학 특별활동 내용도 함께 검토하며 기대감을 나누었다.

또한 하반기 기획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편집·구성 등 역할 분담을 논의하며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았으나, 상반기 선거 일정 등으로 일부 활동이 하반기로 미뤄진 점에 대해 아쉬움도 있었다.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의 연합워크숍에 참여해 촬영 지원과 인스타 릴스 이벤트 활동을 진행하였다. 워크숍 주요 장면을 기록하고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숏폼 촬영을 체험하며 콘텐츠 제작 흐름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릴스 촬영에 참여해 동아리 활동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양한 청소년들과 협력하며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영상 편집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실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컷 편집, 자막 삽입 등 기초 기능을 실습했다. 처음 프로그램을 다루는 청소년들이 많아 기능을 익히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했지만, 직접 편집을 해보며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 있었다. 교육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활동에서 편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맛따라 멋따라’ 기획 콘텐츠 촬영을 위해 지역 맛집을 방문해 먹방 형식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대략적인 구성만 정한 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애드립으로 자연스럽게 촬영을 이어갔다.

즉흥적으로 진행하여 재미가 살아나는 장점이 있었고, 흐름이 다소 흔들리는 단점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촬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송국 YBS

한준수 회장



66 자기주도형봉사활동 적극 참여로 자신감 붙여 학교 학급 실장까지 활동 99

저는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송국 YBS 동아리에서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축제나 기관 행사에 가서 촬영만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시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참여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의 시선으로 본 익산’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익산의 맛집이나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다. 저는 영상에 나와서 말을 하는 출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목소리가 작고 표정도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선생님이 “괜찮다,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셔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촬영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사장님이 “학생이 직접 소개하니까 더 생동감 있다”고 말씀하시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친구들과 제가 함께 만든 결과물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사는 익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저는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봉사라고 하면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나르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영상을 만드는 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일하면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촬영, 편집, 출연 모두 서로 도와야 좋은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를 통해 조율했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YBS 활동은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경험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제 생각을 말하고 지역을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많아져서 저처럼 영상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익산의 다른 식당들도 더 많이 찾아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촬영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카메라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익산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6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미디어의 힘, YBS와 함께한 성장의 기록 99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송국 YBS를 처음 맡았을 때, 지역 내 청소년 미디어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전문 인력과 장비, 협력 구조가 부족해 활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기에,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기획회의에서는 청소년들께서 스스로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역할을 나누는 모습에서 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활동량과 촬영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연간 운영 틀이 필요하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여러 촬영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비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협력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날 행사 촬영에서는 휴대폰을 활용해 현장을 기록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를 통해 향후 어떤 역량을 더 키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중간 피드백 과정에서는 역할 재정비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주도적으로,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촬영 취소나 일정 변화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하반기 활동의 안정적인 구조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과 릴스 촬영 이벤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 교육에서는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빠르게 익히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지역 맛집 콘텐츠 ‘맛따라 멋따라’에서는 즉흥성과 청소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방송국 YBS를 지도하면서 청소년들은 이미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지도자의 역할은 이를 강제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장비나 일정의 한계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청소년들의 유연함과 협력은 큰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 청소년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을 때, 이 활동이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 자기 표현, 협력, 지역 참여로 확장되는 경험임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YBS가 지역 미디어 활동의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한 분 한 분의 가능성이 앞으로도 꾸준히 확장될 수 있도록 YBS는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인후청소년엔터 • 대나무행주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4회	11명	분리배출 알아보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키링, 탈취제, 바디스크럽 만들기

동아리원

• 회장 김민정 • 부회장 김서영 • 서기 김나연 • 지도자 신수진
• 부원 문유나, 심 별, 이예나, 차예빈, 최다희, 백지은, 황지우

66 우리 대나무행주 동아리는

“자연으로 닦고 지구를 살리는 실천 행동하기”의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탄소중립에 대해 생각해 보고 환경 문제를 발견하여 인류의 생존과 기후 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현재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냉난방기 및 전기 과다 사용,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을 이용하며 잦은 배달 음식과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리는 지구온난화, 일회용품 과다 사용 및 쓰레기가 많은 점을 발견하였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여 커피박 키크링과 탈취제, 바디스크럽을 만들어 실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실천 행동을 할 예정이다.



우리는 탄소중립에 대해 생각해보고 청소년들이 직접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 실태를 파악했다. 분리배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실생활에서 분리배출의 다짐을 하며 분리배출의 O/X문제를 풀며 헛갈렸던 내용들을 다시 재정립했다.

CO₂

우리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가 만드는 환경문제를 알아보고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먼저 커피박 키크링을 만들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키크링을 만들 수 있어서 재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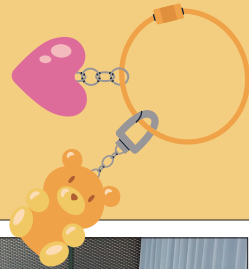
우리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로 생활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도 만들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밌었고 뿌듯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커피박 키링을 말리면서 센터에 방문하여 잘 마르도록 뒤집으며 키링이 예쁘게 완성 되도록 노력했다.

아크릴 물감의 색상이 한정적이어서 아쉬웠지만 동아리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색상을 만들어 완성된 나만의 키링을 봤을 때 너무 뿌듯했다.



우리는 채색이 완료된 커피박 키링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바디스크럽도 만들었다. 코코넛오일과 소금도 함께 넣어서 보습과 각질제거를 할 수 있는 바디스크럽도 만들 수 있어서 신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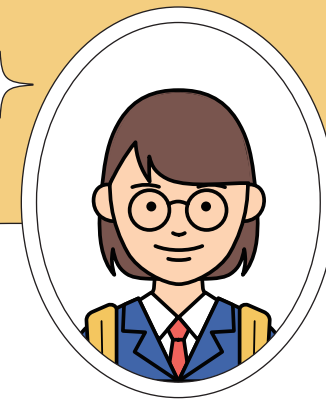


대나무행주 봉사동아리가 마무리 되며 이전과는 달리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인후형소년엔터 대나무행주

김민정 회장



66 자기주도형봉사활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99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인봉초등학교 5학년 김민정입니다. 올해 '대나무행주' 환경봉사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환경에 대해 그동안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환경 문제라고 하면 '중요하긴 하겠지'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아리 첫 시간에 탄소중립과 현재 환경 문제의 실태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었고 저도 환경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리배출 방법도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집에서 제가 직접 실천해보자고 다짐하게 되었고 정말로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이었습니다. 버려진 커피찌꺼기가 환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배우고 난 뒤 그걸 다시 키링이나 탈취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커피박 키링을 말리는 과정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키링이 잘 마르고 있는지 궁금해서 동아리 친구들과 센터에 들러 확인하고, 뒤집어주고, 더 예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며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아크릴 물감 색상이 한정적이었지만 서로 색을 섞어 원하는 색을 만들어가며 협동심도 생겼고, 완성된 나만의 키링을 보았을 때 너무 뿌듯했습니다.

봉사동아리 활동이 마무리 되면서 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활동 전보다 환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활동이 진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회의에서도 앞으로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더 많이 고민해보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대나무행주 환경봉사동아리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시간이 아니라 환경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리배출을 더 정확히 실천하고, 커피찌꺼기처럼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며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대나무행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작은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고 대견했습니다. 지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 라온 자원봉사자치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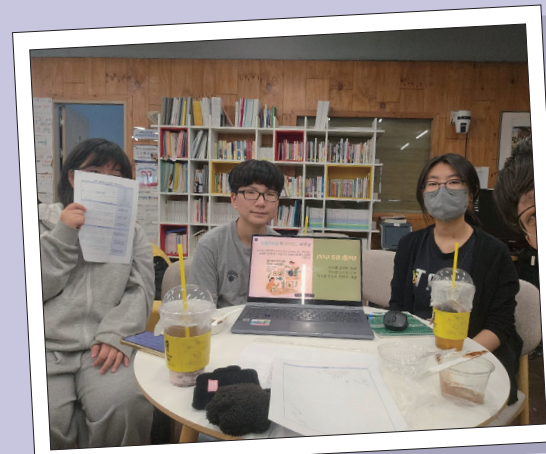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10회	15명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간식 전달, 인지력과 기억력 향상 영상 제작

동아리원

• 회장 정하람 • 부회장 이주연 • 봉사부장 김효원 • 지도자 정이한
• 부원 강수연, 권수아, 권제이, 권태연, 김가은, 김윤지, 김지영

66 우리 동아리는 ‘즐겁다’는 뜻의 순우리말 라온으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는 자원봉사, 우리가 즐거운 자원봉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
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 자치기구입니다.
저희는 군산을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발전시키고 싶은 것들을 찾아 봉사활동으로 기획해 실행합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산시의 인구문제
중 가장 큰 점은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의 부족
이다. 가족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어르신들만 지
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생활고 이상
으로 어르신들께서 힘들어하시는 원인 중 하나는 외
로움이라는 생각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동네 잔
치’를 기획하게 되었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홀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몸과 마음
의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지역 축제를
열 것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체조와 장기자랑,
저혈당 식단으로 구성한 식사를 준비해 대접한다.





어르신을 위한 활동의 첫 기획모임을 가졌다. 홀몸 어르신들께 따스함을 전해드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따숨지기'라는 프로젝트명을 구상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메뉴를 대접할지와 실행할 날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따숨지기 프로젝트를 연계할 착한동네의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혈당이 높으신 어르신이 있다는 소통을 했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게임, 저혈당 식단과 간식에 무엇이 있을지 함께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소년 팀들과 함께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눴다. 따숨지기 프로젝트가 받은 피드백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어르신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착한동네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과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 우려 등으로, 대면 활동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이에 착한동네에서 진행하는 방문 반찬봉사 때 전달드릴 간식을 구매하고, 기억력 및 인지력 향상 게임들을 녹화했다. 나레이션과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인사를 녹음해 편집하기로 했다.



어르신들께 대면 방문이 어려운 만큼, 착한동네 대표님을 찾아뵈어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듣고 건강(저혈당) 간식을 전달드리기 위해 찾아뵈었다. 지역에서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덜어지고, 삶의 활기를 얻으신다고 한다. 착한동네에서 운영했던 청소년 봉사단 사례를 통해 무엇이든 봉사활동이 될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얻었다.



여름방학 청소년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들이 모여 결과발표회를 진행했다. 따숨지기 프로젝트로 제작한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시연하고, 인지력 향상 게임을 참여자들과 함께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보다 어르신 친화적인 봉사활동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66 지역 어르신 손주되기 99

라운 자원봉사 자치기구는 '지역 어르신 손주되기'라는 활동으로 상시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라운은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겨 생활과 외로움 속에 계시다가 착한동네 네트워크를 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주 뻔인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더 에너지를 얻고, 무엇 하나라도 줄 수 있게 더 준비해두고 싶다는 이야기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학창 시절부터 필드를 뛰시는 열정 가득한 축구 선수이셨습니다. 다리를 다치시기 전까지는 후진 양성을 위해 감독으로도 활발히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이라는 주제로 만난 라운의 청소년들 중에는 축구, 태권도, 검도, 유도 등 다양한 체육인들도 있습니다. 종목이 다르더라도 체육인으로서의 공통점 때문인지,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서로 나누며 어르신과 청소년들은 연결되어있었습니다. 그간의 무용담과 청소년들을 위한 응원을 해주시는 어르신의 눈빛을 본 청소년들은 체육에 연이 없더라도 함께 신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회에서 메달을 따왔다는 의기양양한 자랑, 시험에서 저서 아쉬웠다는 이야기, 수학여행을 갔는데 비가 와서 속상했던 일화 등을 나누는 청소년들은 이미 동네 손주로서 어르신과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동네 잔치를 해보자'는 문구로 모인 청소년들은 첫 만남의 기획회의에서부터 장기자랑을 해보고 싶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트로트부터 요즘 곡까지 모두가 가능하다는 청소년도, 혈당이 있더라도 콩국수와 전은 드시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재료를 조사해오겠다며 잔뜩 상기되어있는 청소년들을 보며, 그런 마음만으로 청소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로 직접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뇌 속에 정한 건강 간식들을 전달드리고, 직접 구상한 인사와 놀이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따숨지기에는 남들과 같이 능숙하게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쉽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몇 번의 NG 끝에 인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숨지기의 이름과 같이, 지역에서 따스함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 상상셀러 경제자치기구 ·



활동

방식	횟수	인원	내용
대면	20회	23명	청소년들이 지역의 경제주체가 되어 보는 활동

동아리원

- 회장 김도담 • 부회장 박세린, 최민정 • 서기 최하은, 정다은 • 지도자 김현아
- 부원 시아현, 정아은, 허재경, 서민영, 박유주, 강민서, 이태훈, 최유진, 이소정, 백승준, 한세진, 박다은, 홍서연, 강태건, 이지애, 문애은, 서현웅, 김현서

66 우리 동아리는 내 손으로 직접 수공예, 제과제빵 제품을 만들어
지역사회 플리마켓에 참여하여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 기여하는데 사용하는 상상셀러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민으로 경제의 주체가 되어, 직접 물건을 만
들고, 판매하고, 더 나아가 판매 수익금을 지역사회 기여하는데 사용하는 자치기구입
니다. 이번 플리마켓의 경우, 미안마 민주주의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하고 미안마에
서 청소년 공간 운영을 꿈꾸는 미안마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99



1단계, 문제발견 및 선택하기

미안마에서 발생한 쿠테타에 대해 알아보고 미안
마 청년을 직접 만나 미안마 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획하고자 한다.



2단계, 사전 준비하기

플리마켓 진행을 위해 매주 모여 수공예, 제과제빵
실습을 하며 판매가 가능한 상품성을 만들며 미안마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우리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새로운 동아리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의 카페를 빌려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다.



우리는 미안마 청년과 함께 플리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수익
금을 어디에 기여할지, 캠페인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플리마켓 준비를 하기 위해 판매 제품을 구상
하고 다양한 제과제빵 실습을 하기 위해 지역의 공간
을 빌려 실습을 진행했다.





우리는 플리마켓 운영 중간점검을 위해 캠페인 진행 상황과 물품 판매 계획과 관련하여 미안마 청년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주적공감이라는 공간에 방문하여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만드는 기계를 빌려 업사이클링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플리마켓 진행 날, 주변 지인과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미안마 민주주의에 대한 퀴즈를 하며 미안마 민주주의를 알리고, 당일 미안마 음식을 판매하는 등 지역사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자치연구소 상상셀러 경제자치기구

김도담 회장



66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을 통해 혼자가 아닌 다같이 사는 삶을 알게 되었다. 99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대표자회 회장이자, 상상셀러 경제자치기구 대표 김도담 청소년입니다. 어느덧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현재 19살인 시점인 지금까지 달그락에서 활동한 지 6년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하던 활동에서는 즐거움을 느꼈지만 저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흥미를 잃어 잠시 쉬게 되던 중, 달그락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닫고 '공예가'라는 꿈을 실현하기 직접 자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열심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혼자임에도 제 꿈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이어간 끝에, 지금의 '상상셀러'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한 총 23명의 청소년이 함께 팀워크와 열정을 갖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과제빵, 업사이클링 공예품 제작과, 전문적인 기구와 함께 손재주를 꾸준히 늘리며 더욱 더 활기있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자기주도형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올해 메이존 미안마 인턴선생님을 통해 알게된 미안마의 현실에 대해 알고 지역사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한 부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가 달그락이라는 공간에서 변화한 점은, 저를 '참여하는 사람'에서 '모두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활동에 참여하는 데 그쳤지만, 점점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할 사람을 모으고,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역 시민을 넘어 세계시민으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알리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여 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달그락은 저에게 세 가지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책임감, 용기, 연대입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맡아보면서, 작은 결정 하나가 전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혼자라는 두려움이 컸지만, 선생님과 미안마 선생님, 부원들과 함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서로의 힘과 아이디어를 모으니 가능해졌고, 그 과정에서 '함께한다'는 가치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지구반대편에도 닿을 수 있기를

저에게 달그락은 단순한 청소년 공간이 아니라, 제 꿈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고, 그 꿈을 사람들과 나누며 확장해나갈 수 있는 성장의 터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넓은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활동사례집

인 쇄	디자인마루터
발 행	2025년 12월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49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2층)
전 화	063-232-0479
팩 스	063-287-0479
발행인	김의숙
발간관리번호	JB YWA-2025-004

